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55-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년 입양인식조사]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인식

10명 중 2명, 보호아동 양육에 참여할 의향 있어

2025. 11. 12.

담당자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 참여 의향

**2003년부터 아동의 복리 증진과 원가정 보호를 위해 '가정위탁보호사업' 본격적으로 시행
2015년~2023년까지 매년 위탁가정 세대수가 위탁아동 수보다 꾸준히 높은 것이 현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를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아동의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삼는다. 이러한 목표 하에 정부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원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에게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해,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보호와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설 보호보다 가족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03년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면서 정부 차원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이 본격화 되었다.

다음 그래프는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와 「가정위탁 국내입양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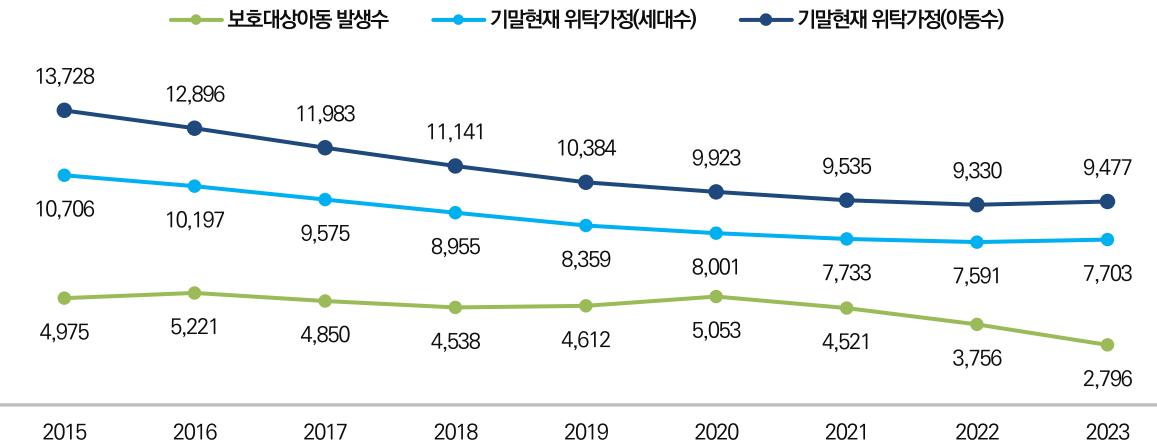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학대, 방임,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새롭게 공적 보호가 이루어진 아동의 규모를 의미한다. 매년 새로 발생하는 아동 보호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밀현재 위탁가정'은 해당 연도 말(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 중인 가정의 총 규모를 나타낸다. '위탁가정 세대수'는 연도 말 기준으로 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총 규모를 나타낸다. 친인척, 일반(친인척 외), 전문위탁가정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 이 수치는 전년도 말 기준 세대수에 새로 위탁을 시작한 세대수를 더하고, 위탁이 종료된 세대수를 제외한 결과다. '위탁가정 아동수'는 연도 말 기준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인원을 뜻한다. 직전 연도 말의 보호 아동수에 신규 위탁 아동을 더하고, 위탁이 종료된 아동을 제외한 최종 잔여 인원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보호대상아동 발생수와 기밀현재 위탁가정(세대수, 아동수)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현재 위탁가정 세대수는 10,706세대, 아동수는 13,728명,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4,97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위탁가정 세대수가 7,703세대, 아동수가 9,477명, 보호대상아동 발생수는 2,796건으로 줄어들었다. 주목할 점은 매년 위탁가정의 세대수보다 위탁아동 수가 꾸준히 많다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여러 명의 보호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23년 기준 한 가정에서 평균 1.2명의 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에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건수는 2,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여전히 상당수의 아동이 가정위탁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향후 보호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는 동시에 위탁가정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수 및 기밀현재 위탁가정(세대수, 아동수)

(단위: 명, 세대)



출처: KOSIS 통계자료, 보건복지부의 「가정위탁국내입양현황」, 「가정위탁보호아동 현황」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 2년 연속 10%대로 낮아 입양 수용도 높은 집단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에도 호의적인 편 60대, 입양은 어렵지만 임시 아동 보호에 대한 수요 일부 존재해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2년 연속 14%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인 반면, ‘잘 모른다’는 응답은 25%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의 약 두 배 높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60%이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잘 모르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 한편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2024년 28%에서 2025년 23%로 5%포인트 감소했다. 참여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7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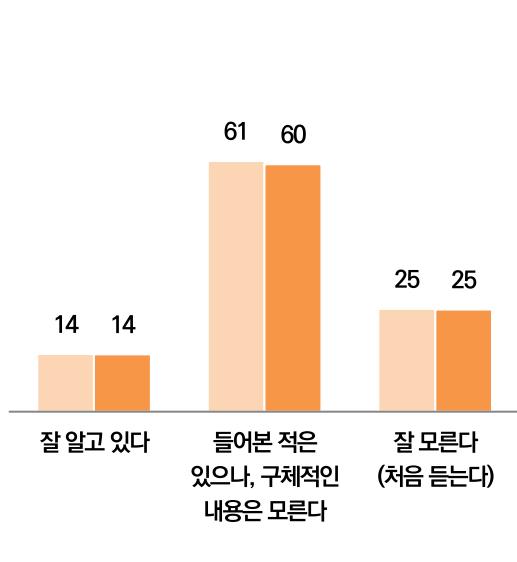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시행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관련 사업의 취지와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정서적인 교류,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기는 하나, 참여 여부 및 의향과 관계없이 사업의 내용과 목적, 취지 등이 더 확산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한편, 자녀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집단을 입양 수용도가 높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와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과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은 각각 19%, 21%가 관련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녀 입양에 긍정적인 사람들 중 40%, 자녀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 중 63%가 위탁가정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이미 입양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임시보호 형태의 가정위탁에도 심리적 거부감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대별로 보면, 3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세대에서 참여 의향이 20%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30대는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적 특성상 입양이나 아동 보호가 주요 관심사가 아니며, 70세 이상은 현실적인 양육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60대는 입양 의향은 낮지만 가정위탁 참여 의향은 20%대 수준으로 비교적 높아, 직접적인 입양보다 한시적 아동 보호 형태에 대한 수요가 일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29세 또한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입양 의향(27%)과 위탁가정 참여 의향(26%)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가정위탁보호사업 인지도 낮은 편, 잘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1명
60세 이상, 자녀 입양에 수용도가 높은 사람은 인지도 20%대

(단위: %)



2025년 조사결과

18-29세	9	46	44
30대	7	54	39
40대	13	59	28
50대	14	65	21
60대	23	68	9
70세 이상	20	65	15
미혼	8	51	41
배우자 있음	17	63	20
사별, 이혼	20	71	9
자녀 있음	18	65	17
자녀 없음	8	52	40
자녀 입양 인식 긍정적	19	58	23
긍정도, 부정도 아님	11	62	27
부정적	13	60	27
자녀 입양 의향 있다	21	56	23
자녀 입양 의향 없다	13	61	26

질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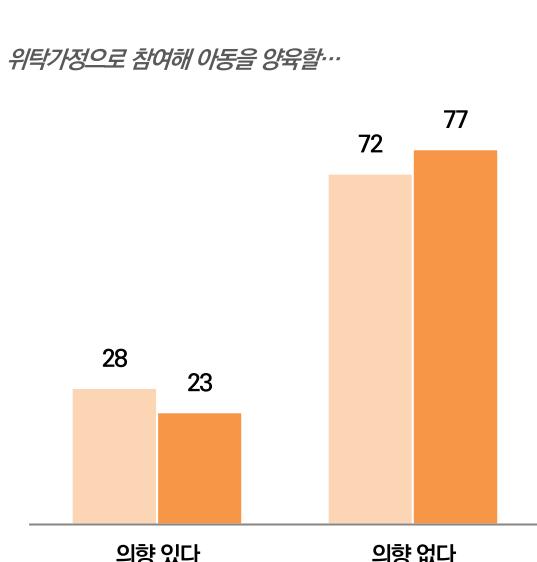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15. // 2025. 7. 25. ~ 29.

위탁가정 참여 의향은 23%, 지난해보다 5%포인트 감소

입양 수용도가 높은 사람의 위탁가정 참여 의향 높은 편, 30대와 70세 이상 제외 참여 의향 20%대

(단위: %)



2025년 조사결과

18-29세	26	74
30대	18	82
40대	29	71
50대	23	77
60대	24	76
70세 이상	19	81
미혼	24	76
배우자 있음	24	76
사별, 이혼	20	80
자녀 있음	23	77
자녀 없음	25	75
자녀 입양 인식 긍정적	40	60
긍정도, 부정도 아님	15	85
부정적	8	92
자녀 입양 의향 있다	63	37
자녀 입양 의향 없다	15	85

질문: 위탁가정으로 참여해 아동을 양육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4. 7. 12. ~ 15. // 2025. 7. 25.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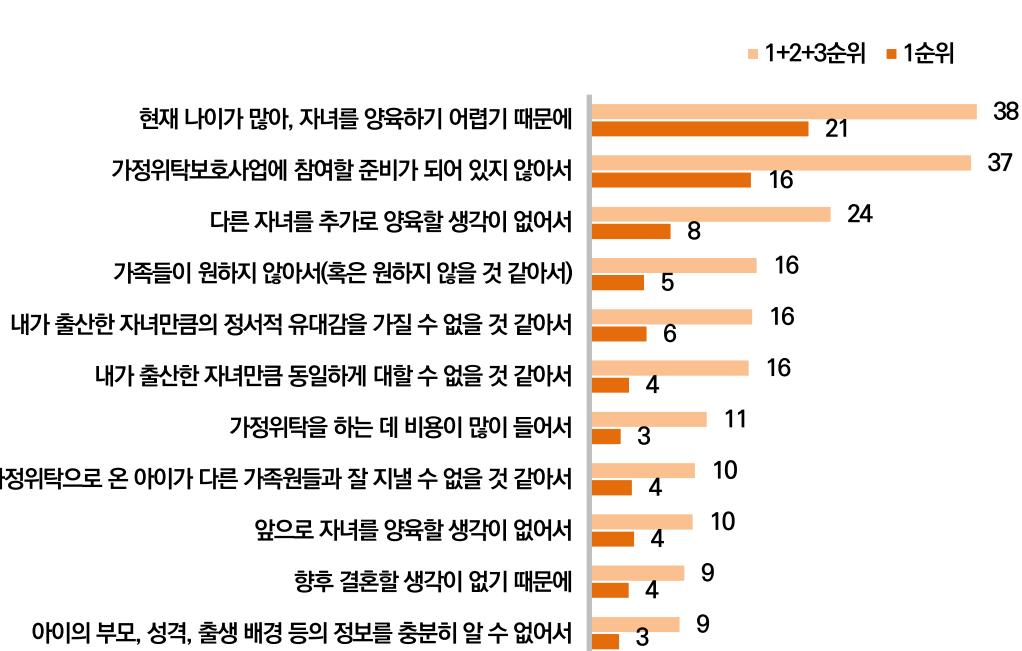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는 766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가장 높은 응답은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기 때문에(38%)'이다(1+2+3순위 응답). 이어서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37%)',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24%)' 참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혹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16%)',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서(16%)', '내가 출산한 자녀만큼 동일하게 대할 수 없을 것 같아서(16%)' 등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이 뒤를 잇는다.

'현재 나이가 많아,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외하면, '가정위탁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세대나 입양 태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요한 이유이다. 특히 자녀 입양 의향은 있으나 가정위탁보호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37%가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사회적 인식과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업의 취지와 절차를 알기 쉽게 전달해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는 세대 특성이 반영된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현재 나이가 많아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이 높다. 50대는 50%, 60대는 70%, 70세 이상은 66%로 연령이 높을수록 현실적인 부담을 이유로 든다. 반면 2·30대는 정서적 유대 형성의 어려움과 결혼·양육 계획 부재를 주요 이유로 꼽는다. 2·30대가 입양 혹은 가정위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유는 비슷한 맥락에 있다. 미혼, 무자녀 응답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에 이어 결혼 및 자녀 양육 계획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앞서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입양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에 호의적인 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자녀 입양 의향은 있지만,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가정위탁을 위한 준비 미흡(37%)과 비용 부담(20%) 등을 위탁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꼽는다. [지자체별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지원금이 상이하다는 분석이 있다.](#) 지역별 지원금 편차로 아동의 복리를 확보하고 잠재적 사업 참여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 참여 의향을 제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38%)’,
‘참여할 준비가 안 되어서(37%)’, ‘다른 자녀를 추가로 양육할 생각 없어서(24%)’ 순으로 높아(1+2+3순위 응답)



질문: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1+2+3순위 기준 상위 11개 응답만 제시

응답자 수: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 없는 766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가정위탁보호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50대 이상, '나이가 많아서'
2·30대, '정서적인 교감의 어려움' 또는 '결혼·양육 계획 없어서'

(단위: %)

가정위탁보호 사업 참여 의향 없음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나이가 많아 양육 어려움	가정위탁 보호사업 준비부족	추가 양육 의사 없음	가족들 원하지 않음	정서적 유대 형성 어려움	출산 자녀만큼 동일한 대우 어려움	비용 부담	가족 내 적응 우려	향후 양육의사 없음	결혼 계획 없음	아동 정보 부족
전체	(766)	38	37	24	16	16	16	11	10	10	9	9
연령												
18~29세	(111)	2	26	1	13	21	24	14	12	25	18	9
30대	(123)	4	32	19	12	20	19	17	9	23	15	10
40대	(122)	25	38	36	22	19	16	14	14	9	10	8
50대	(150)	50	49	29	17	15	13	12	16	6	9	8
60대	(135)	70	43	31	10	7	12	8	5	1	4	7
70세 이상	(125)	66	31	22	24	15	12	5	7	0	2	11
혼인상태												
미혼	(229)	9	34	0	10	15	14	15	10	29	26	8
배우자 있음	(436)	48	40	36	22	17	18	11	10	2	-	10
사별, 이혼	(102)	57	32	24	7	14	7	5	10	2	11	8
자녀 유무												
자녀 있음	(491)	52	39	37	20	16	17	10	10	-	2	8
자녀 없음	(275)	13	35	-	10	15	14	15	10	28	23	10
자녀 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222)	41	41	21	13	12	11	11	8	10	12	8
중간이다	(436)	36	35	24	16	16	16	13	11	11	10	9
부정적이다	(107)	38	40	29	24	24	24	7	12	7	2	11
자녀 입양 의향												
의향 있다	(66)	14	37	6	12	19	18	20	12	9	19	6
의향 없다	(700)	40	37	25	17	16	15	11	10	10	8	9

질문: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1+2+3순위 기준 상위 11개 응답만 제시

'다른 자녀를 추가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에게만, '앞으로 자녀를 양육할 생각이 없어서'는 자녀가 없는 응답자에게만, '향후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는 미혼·사별·이혼 응답자에게만 제시

응답자 수: 가정위탁보호사업 참여 의향 없는 766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2 가정위탁보호사업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6%)’,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4%)’ 등
위탁가정 참여 의향 있는 사람은 ‘사업 설명회’에 대한 선호도 비교적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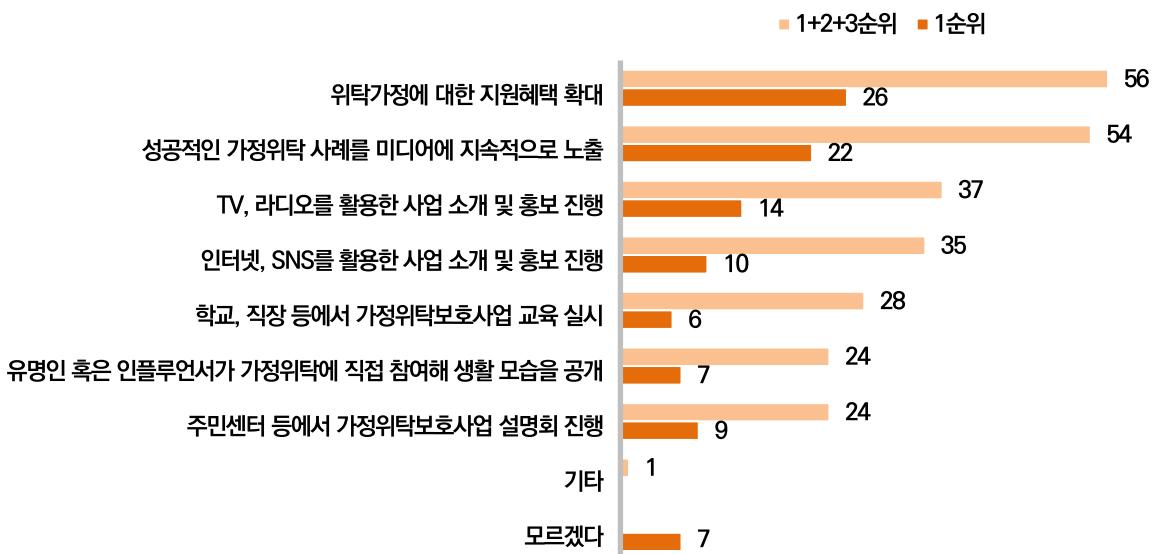
가정위탁보호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관련 사업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에 그친다. 참여 의향 역시 23%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람들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56%)’를 가장 많이 꼽는다(1+2+3순위 응답). 다음으로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54%)’, ‘TV·라디오(37%)’나 ‘인터넷·SNS(35%)’를 활용한 홍보가 효과적이라는 응답도 30%를 상회한다. 이어서 ‘학교·직장 등에서의 교육(28%)’, ‘유명인의 참여 사례 공개(24%)’, ‘주민센터 설명회 진행(24%)’ 순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집단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원 혜택 강화와 긍정 사례 확산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진다. 특히 입양에 긍정적이거나 가정위탁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은 지원 확대와 미디어 노출을 주요 개선 방안으로 꼽는다. 특히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 중 32%는 주민센터 등에서의 설명회 개최가 효과적이라고 답해, 단순 홍보를 넘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세대별로는 홍보 매체에 대한 선호가 다르다. 60세 이상은 기성 언론이나 사업 설명회 등 전통적 방식을 선호하는 반면, 2·30대는 SNS나 유명인 참여와 같은 디지털 기반 홍보를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한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세대별 매체 특성과 정보 접근 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단순한 홍보에 그치지 않고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전달하며, 위탁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위탁보호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위탁가정 지원 혜택 확대(56%)',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 노출(54%)' 등(1+2+3순위 응답)**

(단위: %)



질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위탁가정 참여 의향이 있는 사람, 위탁가정 지원혜택 확대와 미디어 노출 필요해
사업설명회 진행에 대한 선호도 32%로 적지 않아**

(단위: %)

1+2+3순위 응답	사례수 (명)	위탁 가정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성공적인 가정위탁 사례를 미디어에 지속적 으로 노출	TV, 라디오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 진행	인터넷, SNS를 활용한 사업 소개 및 홍보 진행	학교, 직장 등에서 가정위탁 보호사업 교육 실시	유명인이 가정 위탁에 직접 참여해 생활 모습 공개	주민센터 등 가정 위탁보호 사업 설명회 진행	기타	모르겠다
전체	(1,000)	56	54	37	35	28	24	24	1	7
연령										
18~29세 (151)		52	46	21	41	25	29	11	3	13
30대 (150)		46	53	27	39	29	28	19	0	12
40대 (172)		57	55	41	35	25	28	26	1	6
50대 (195)		63	57	45	39	24	23	27	1	1
60대 (178)		60	57	39	29	28	22	31	1	7
70세 이상 (154)		57	53	46	27	37	18	30	3	5
자녀 입양 인식										
긍정적이다 (373)		60	58	37	35	32	24	25	1	3
중간이다 (511)		52	53	37	35	26	24	23	1	10
부정적이다 (117)		60	44	37	33	22	25	25	2	9
자녀 입양 의향										
의향 있다 (178)		58	61	30	39	30	25	29	2	3
의향 없다 (822)		56	52	39	34	27	24	23	1	8
위탁가정 참여 의향										
의향 있다 (234)		65	60	35	36	30	25	32	2	0
의향 없다 (766)		53	52	38	35	27	24	22	1	9

질문: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7. 25. ~ 29.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6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59,338명, 조사참여 1,640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7%, 참여대비 61.0%)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7월 25일 ~ 7월 29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